

‘위안부’ 증언소설 번역 분석을 바탕으로 ‘위안부’에 대한 초국적 이해 모색

Promoting Transnational Understanding of ‘Comfort Women’
Based on the Analysis of a Testimonial Novel

마승혜, 동국대학교 영어영문학부 조교수

Seung-Hye Mah, *Department of English Linguistics,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Dongguk University-Seoul, Assistant Professor*

1. 연구배경

2. 연구 대상 및 질문

3. 연구의의

4.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조사

4.1 번역사회학 연구 부류

4.2 피에르 부르디외 번역 사회학 이론의 주요 개념

4.3 번역사회학 이론의 특징 및 한계

4.4 선행연구

5. 번역사회학적 분석

5.1 번역 출판 전 번역가 의도 및 번역 출판 관련 상황 맥락 분석

5.2 번역 결과물 분석

5.3 번역 출판 후 번역 독자 반응 분석

6. 결론

1. 연구 배경

1) '위안부'에 대한 기록 보존의 시급성

- 2022년 2월 기준, 238명이던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는 13명만 남은 상황임.
- 이들이 과거에 겪었던 시련과 고난을 기록한 자료는
 - ① 공식 역사기록인 정부 및 유엔 인권위원회 조사보고서
 - ② 비공식 역사기록인 '위안부' 생존자의 구술 증언집
 - ③ '위안부' 생존자 증언을 바탕으로 한 역사문학, 드라마, 또는 영화와 같은 대중매체

- 공식/비공식 역사기록의 한계 (마승혜·김순영, 2021)

: 공식 역사기록은 '위안부' 제도와 관련하여 특정 주체의 입장에서 선택된 '사실' 위주로 기술한다는 한계

: 비공식 역사기록인 구술 증언집은 모든 사실을 털어놓지 못하는 '위안부' 생존자의 '침묵'이 존재한다는 한계 (김미영, 2009)

: 공식/비공식 역사기록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 문학, 드라마, 또는 영화와 같은 매체

: 이러한 맥락에서 '위안부' 생존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위안부' 역사문학은 얼마 남지 않은 '위안부' 생존자들의 소멸해가는 기억을 보존하고 겉으로 표현하지 못했던 억압된 감정을 드러내는 통로가 됨

2) '위안부' 역사에 대한 초국적 논의 확대

e.g.) 2021년 8월 14일 서울시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국제적 쟁점과 협력 과제”라는 주제로 국제포럼을 개최함. 이 포럼을 주최한 서울시는 ‘위안부’ 이슈를 한·일 간 정치적 문제로 보는 관점에서 탈피하여 초국적 관점에서 공유되는 기억의 문화를 만들어 가고자 한다는 뜻을 밝힘.

: ‘위안부’ 역사에 대해 초국적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위안부’ 생존자 경험과 감정이 상세하면서도 정확하게 타문화권에 전달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출발점 중 하나는 ‘위안부’ 생존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상세하게 경험과 감정을 묘사한 문학작품을 정확하고 적절하게 번역하여 그 경험과 감정을 이해하고 공유하는 것.

2. 연구대상 및 질문

2.1 연구대상

원본 (source text, ST)은 김숨 작가의 ‘위안부’ 증언소설 『한 명』

번역본 (target text, TT)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한국문학 교수 브루스 풀턴 (Bruce Fulton)과 그의 아내 주찬 풀턴 (Juchan Fulton)이 공동 번역한 *One Left*

2.2 연구질문

- 1) 번역본 출판 전, 번역가가 어떠한 의도를 갖고 있었는지?
- 2) 번역 결과물에는 번역가 의도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 3) 출판 후 독자 반응은 원작 독자 반응과 유사한지, 번역가의 의도가 잘 구현되었는지?

3. 연구의의

‘위안부’에 대한 논의가 국제적 논의로 확대되고 있는 이 시점에, ‘위안부’의 경험과 감정을 상세하면서도 진실성 있게 기술한 증언소설 번역 분석을 바탕으로 좀 더 많은 타문화권 사람들이 ‘위안부’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화해와 치유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4.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조사

4.1 번역사회학 연구 부류 (Tyulenev, 2014)

- 니클라스 루만(Niklas Luhmann)의 **사회체계 이론 (social system theory)**:

사회는 여러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하위체계로 구성됨, 번역가와 번역 행위 보다는 번역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와 체계를 중시함.

- 브뤼노 라투르(Bruno Latour)의 **행위자-네트워크 이론 (Actor-Network Theory)**:

사회 네트워크 형성 과정 및 그 네트워크를 생성하는 개별 행위자에 초점을 맞춤.

-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의 **사회 실천 이론 (theory of social practice)**:

사회 구조냐 개인이냐의 이분법적 시각에서 벗어나 구조와 주체의 개별성 그리고 상호작용을 중시함.

4.2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 1930-2002) 번역 사회학 이론의 주요 개념 (임진, 2019; 이영훈, 2021)

① 장(field)

: 직업 행위를 실천하고 대결·충돌하는 경험상의 공간

e.g.) 문학장(literary field), 출판장(publishing field), 번역장(translation field)

② 자본(capital)

: 개인의 실천 결과 얻게 되는 경제, 사회, 문화적 보상, 자질, 특징 등

e.g.) 경제 자본(economic capital), 사회 자본(social capital), 상징 자본(symbolic capital) 등

③ 아비투스(habitus)

: 성장 과정과 사회 활동을 통해 습득되고 내면화 된 개인의 기질 및 성향

④ 일루시오(illusio)

: 특정 장의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향, 관심, 동기

4.3 번역사회학 이론의 특징 및 한계

: 부르디외의 이론을 기반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번역사회학(sociology of translation)’은 번역을 단순한 언어적 전환으로 보고 텍스트 내적으로만 번역을 설명하던 언어학적·문학적 접근에서 벗어나 텍스트 외적 상황 맥락을 고려하여 번역 과정과 그 결과를 관찰하고 설명하는 접근방식임(이영훈, 2021: 47).

: 부르디외의 이론을 기반으로 번역학자들이 실제 번역 및 번역가에 대한 번역사회학적 분석을 진행하기도 했는데, 텍스트 외적 상황 맥락에 집중하다 보니 번역 실천의 산물인 번역 결과물에 대한 연구는 소홀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함(이영훈, 2021: 63).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번역 출판 전 번역가 의도와 노력, 번역 출판 후 독자 반응과 같은 상황 맥락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번역 결과물에 대한 분석을 연계하여 진행함.

4.4 선행연구

4.4.1 증언 소설 『한 명』

: 『한 명』은 허구를 기반으로 한 소설이 아니라 '위안부' 생존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과거 경험과 감정을 생생하게 기록한 증언 소설이고, 작품 전반에 걸쳐 316개 미주를 표시하여 진술 근거를 제시하고 있음.

: 이는 이 작품이 단순한 문학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제시하고, '위안부'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시도하고자 노력한 증언소설이라는 것을 보여줌(배지연, 2020: 269).

4.4.2 번역가 아비투스 및 상징자본

번역가인 브루스 풀턴과 주찬 풀턴은 40년 이상 한국문학 영어번역을 수행해 왔고, 1985년 대한민국문학상번역상, 1994년 한국문학번역상, 1998년 펜(PEN) 번역문학상, 2009년 대산문학상번역상, 2014년 미국문예지 매사추세츠리뷰 카메츠키 번역상(The Massachusetts Review Chametzky Prize)을 수상하였다. 그리고 브루스풀턴은 한국문학연구와 번역으로 한국문학을 영어권에 널리 알린 평생공로를 인정받아 2018년 문예부분 만해대상을 수상함(김자경, 2021: 48).

5. 번역사회학적 분석

5.1 번역 출판 전 번역가 의도 및 번역 출판 관련 상황 맥락 분석

5.1.1 번역가 일루시오

첫째, '위안부' 생존자가 모두 돌아가시기 전, 이 작품을 세계에 알리고자 하였음.

둘째, 원작자인 김숨 작가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구술증언을 기반으로 한 이 작품의 진실성을 그대로 살리고, 할머니들이 힘들게 되찾은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였고(유동엽, 2021), 번역가는 이러한 작가 정신을 살리고 돕고자 함.

셋째, '위안부' 피해자 목소리를 들려주고 고통의 감정과 역사를 드러내어 궁극적으로 치유와 회복의 길을 모색하고자 함.

5.1.2 번역 출판장 특징

: 미국의 여러 출판사가 이 책 출판을 거부함

: 첫째, 300개 이상의 미주가 달린 이 책이 역사책이라 해야 할지, 소설책이라 해야 할지 애매하기 때문에 상업 출판사와 대학 출판사 모두 출판을 주저함.

: 둘째, 너무 관음적(voyeuristic)이고 자극적(sensational)인 주제로 이미 다뤄진 바가 있는 내용이라 진부한 작품으로 받아들여질까 봐 우려함.

: 셋째, 정치적으로 미국에는 일본 우호적인 풍토가 깔려있고, 일본의 물질적 투자를 배제하기 어려움(김자경, 2021: 63-64).

5.2 번역 결과물 분석

: 번역가는 '위안부' 생존자의 구술 증언인 300여 개의 미주를 재확인하고 정확하지 않은 부분은 작가와 여러 전문가에게 물어가며 작품의 역사적 진실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고, 그 결과, 원문과 비교해 번역본에서는 장소 배경, 감정, 행동 묘사가 좀 더 상세하게 추가됨.

5.2.1 장소 묘사 상세화

<사례 1>

ST: 30여 분을 걸어가자 아무렇게나 지은 초가집이 나왔다. 군용트럭이 울타리도 없는 초가집 앞에 서 있었다. (p. 41)

TT: From there a thirty-minute walk brought them to a thatch-roofed structure coated with red dust; it lacked the usual brushwood fence. A military truck was parked close by. (p. 26)

→ 번역가가 임의로 덧붙인 것이 아니라 최초 위안부 구술기록집인 『들리나요? 열두 소녀 이야기』를 바탕으로 세부 묘사를 덧붙인 것

<사례 2>

ST: 아침이 되어 그녀가 뒷마당 세면실로 갔을 때 소녀들이 저마다 울면서 피 빨래를 하고 있었다. (p. 43)

TT: The next morning she went to the canvas-covered laundry area in the backyard to find all the girls in tears as they washed their bloody underwear. (p. 28)

→ <사례 2>에서도 마찬가지로 ST에서는 '뒷마당 세면실'이라고 언급한 부분을 'the canvas-covered laundry area in the backyard(천막을 친 뒷마당 세면실)'이라고 좀 더 상세히 묘사함. 이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서 발간한 증언집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을 바탕으로 한 것임.

: 장소에 대한 묘사를 상세하게 덧붙이는 것은 '위안소'의 실재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타문화권 독자들에게 이러한 장소가 실제로 존재했음을 납득하게 하는 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즉, 작품의 진실성을 살리고자 한 의도가 구현된 하나의 방식임.

5.2.2 감정 묘사 상세화

<사례 3>

ST: 소녀들은 자신의 비명 소리를 따라 돌림노래처럼 이어지는 비명 소리들을 들었다. 그것은 시작도 끝도 없는 돌림노래였다. 만주 위안소의 소녀들이 칸칸마다 든 방들은 달랑 베니어합판 한 장으로 구분해놓아 서로의 신음 소리까지 다 들렸다. (p. 44)

TT: The girls in this comfort station in Manchuria could hear one another's screams, an endless round of pain, through the thin plywood walls of their rooms. And they could hear one another moaning and groaning. (p. 29)

: <사례 3>에서는 소녀들이 각자의 방에서 잔혹하게 학대당하던 장면을 묘사하고 있고, ST에서는 각 방에서 들리는 소녀들의 비명소리를 '시작도 끝도 없는 돌림노래'라고 묘사함. 그런데 TT에서는 '돌림노래'라는 상징적 표현 속에 내포된 감정을 'an endless round of pain(끝도 없는 고통의 돌림노래)'라고 명시적으로 드러냄.

<사례 4>

ST: 복사뼈 바로 위에 고무줄을 두른 듯 선이 한 줄 가 있다. 칼 같은 날카로운 것에 베인 흉터다. 손으로 흉터를 더듬는 그녀의 입이 벌어지더니 사금파리 같은 탄식을 토한다. 위안소에서 발이 잘린 소녀가 자신이었다는 것을 깨닫고는. (p. 119)

TT: Above the bone is a line you might think was left by an elastic band, but actually it's a scar left by something sharp, a knife perhaps. She passes her hand across the scar, then opens her mouth and **a shriek bursts out. That was me who had her ankle sliced open at the comfort station!** (p. 87)

: 위안소 관리자는 도망가려다 붙잡혀 온 소녀의 발목을 칼로 베어 도망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줌. ST에서는 시간이 지나 그 소녀가 자신의 복사뼈 위 흉터를 보며 '탄식'을 토한다고 표현하고, 탄식을 토한 이유를 간접 화법으로 전달하고 있지만, TT에서는 '탄식'보다 더 강한 의미의 단어인 'shriek'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위안소에서 발이 잘린 소녀가 나였어!"라는 직접화법과 느낌표를 사용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감정을 묘사하고 강조함.

5.2.3 행동 묘사 상세화

<사례 5>

ST: 그래서 소녀들은 자기 피와 아편을 먹고 죽었다. 손가락을 잘라 자기 피를 빨아 먹고 아편을 먹으면 자면서 죽는다는 걸 어떻게 알고는. (p. 58)

TT: And so the girls would cut themselves and bleed to death while high on opium. Knowing that if they cut a finger and sucked long enough to get the blood flowing, the opium would put them to sleep and they'd never wake up. (p. 40)

: <사례 5>를 보면, 위안소 생활을 견디지 못한 '위안부'가 자살을 시도한 방법을 설명함.

ST에서는 행동 묘사가 상세하지 않아 정확하게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움. 그래서 ST에서 '아편을 먹고 죽었다'라고 표현한 부분은 TT에서 'bleed to death while high on opium(아편에 취해 있는 상태에서 피를 흘리고 죽었다)'라고 상세화하고, '자기 피를 빨아 먹고 아편을 먹으면 자면서 죽는다'는 ST 내용은 'sucked long enough to get the blood flowing, the opium would put them to sleep(자기 피를 충분히 오랫동안 빨아서 계속 흐르게 하고, 아편을 먹으면 정신을 잃고 자게 된다)'라고 TT에서 상세화함.

<사례 6>

ST: 얼굴이 까무잡잡하고 외까풀이던 애순은 물에 타 쓰라고 준 과망간산칼리를 삼켰다. 다행히 금복 언니가 토하게 해 죽지 않고 살았지만 목구멍이 쪼그라들었다. (p. 71)

TT: Aesun with her swarthy face and thin eyelids drank the potassium permanganate solution she was supposed to dilute with water to clean her privates. Fortunately Kumbok onni found her and made her throw up. But the solution left her throat raw. (p. 51)

: <사례 6>에서 '위안부' 소녀들은 성병에 시달렸기 때문에 독한 과망간산칼리를 받아서 물에 희석하여 씻고 소독하였음. ST에서는 '물에 타 쓰라고 준 과망간산칼리'라고만 표현하여 어디에 쓰는건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데 TT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to clean her privates(은밀한 부위를 닦으라고)'를 위해 준 과망간산칼리라고 설명함.

5.3 번역 출판 후 번역 독자 반응 분석

- 아마존(<https://www.amazon.com>)
- 굿리즈(<https://www.goodreads.com>)
- 아시아북리뷰(<https://asianreviewofbooks.com>)
- 아트퓨즈(<https://artsfuse.org>)
- 인터네셔널 이그재미너(<https://iexaminer.org>)

*"There were times this felt more like an academic text rather than a novel: at best it read like a mash-up of the two. (...) From a distance it is all too easy to consign awareness of historical outrages to a dim corner of our consciousness. Not until we are confronted with direct evidence of a disaster... are we **forced to acknowledge the magnitude of the trauma and the urgency of the need for healing.**"*

(이 글은 소설이라기보다 학문적 텍스트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다. 적어도 이 둘을 섞어놓은 것처럼 느껴졌다. (... 중략 ...) 가까이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어서 역사적 분노에 대한 인식을 어렵듯하게 의식의 한구석으로 밀쳐놓기 쉽다. 비극적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직면하면 그때 **트라우마의 심각성과 치유의 시급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https://www.goodreads.com/book/show/53154232-one-left>)

*"This is a wonderfully written novel that depicts the reality many Korean comfort women faced. Through the use of well-timed flashbacks, readers are shown **the horrible living conditions and scenes of mistreatment in stark detail.** **Many specific details are directly from real testimonies of victims, which in my opinion makes this novel even more significant.** I would highly recommend this to anyone interested in learning more about Korean history as well as anyone interesting in sexual violence during war."*

(많은 한국인 위안부들이 겪었던 현실을 잘 그린 소설이다. 시기 적절한 플래시백을 통해 독자들은 **끔찍한 생활 환경과 학대의 장면을 극도로 자세하게 보여준다.**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피해자의 실제 증언을 기반으로 한 것이어서 이 소설이 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 역사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은 사람과 전쟁 중 성폭력에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 이 책을 적극 추천한다.)

(https://www.goodreads.com/en/book/show/53154232-one-left#other_reviews)

"Comfort women happened not only in Korea, but also in Taiwan, where it is mentioned in textbooks briefly. Despite the protests and social movements in the region, some survivors passed away before receiving an apology from the Japanese government.

I am glad that 'One Left' is going to raise awareness of the issue in more countries despite the cruel reality mentioned throughout the book. *It is definitely not an easy book to put down my thoughts, but I would recommend this book to anyone who is interested in this particular historical event.*

Disclosure: I read the book in Chinese titled '最後一個人', but write this review in English."

("'위안부'는 한국 뿐만 아니라 대만에도 있다. 대만의 경우 교과서에 짧게 언급하고 있다. 지역 시위와 사회운동이 일어나기는 했지만, 일부 생존자들은 일본 정부로부터 사과 받기 전에 사망했다.

One Left 책 전반에 걸쳐 보여주는 생활상이 가혹하기는 하지만 더 많은 국가에서 이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 이 책에 대한 내 생각을 글로 적는 것은 쉽지 않지만, 이 특별한 역사적 사건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이 책을 추천하고 싶다.

추신: 最後一個人이라는 중국어 번역본으로 읽었는데 이 리뷰는 영어로 작성함.)

(https://www.goodreads.com/en/book/show/53154232-one-left#other_reviews)

6. 결론

(학문적 의의)

기존 번역사회학적 분석 방법에서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여 번역사회학 연구에 대한 학문적 적용 및 논의를 확대함.

(사회적 의의)

: '위안부'에 대한 논의가 국제적 논의로 확장되고 있는 이 시점에, 좀 더 많은 타문화권 사람들이 '위안부' 이슈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발판 마련.

→ 위안부' 생존자가 모두 돌아가시기 전, 이 작품을 세계에 알리고자 한 번역가 일루지오 달성

: '위안부'의 경험과 감정을 상세하면서도 진실성 있게 번역함.

→ '위안부' 할머니들의 구술증언을 기반으로 진실성을 그대로 살리고, 할머니들이 힘들게 되찾은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으려 한 목표 달성

: '위안부' 이슈에 대해 한-일 양국만이 아닌 여러 단체, 국가와 논의하고 화해와 치유 방안을 모색.

[References]

- 김미영. (2009).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역사기록과 문학적 재현의 서술방식 비교 고찰」. 『우리말글』, 45, 217-245.
- 김자경. (2021). 「한국문학 번역에서 문학 번역가의 역할: 브루스 풀턴, 주찬 풀턴의 한 명 번역 결정부터 *One Left* 출판까지의 과정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22(2), 47-77.
- 마승혜·김순영. (2021). 「역사문학 번역 충실성에 대한 일고찰-‘위안부’ 소설 *White Chrysanthemum*을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23(2), 29-54.
- 배지연. (2020). 「기억의 서술과 문학적 재현—김숨의 일본군 ‘위안부’ 관련 소설들을 중심으로」. 『우리말글』, 86, 245-276.
- 이영훈. (2021). 「번역사회학 개관: 피에르 부르디외의 사회학 이론을 기반으로」. 『번역·언어·기술』, 2, 45-69.
- 임진. (2019). 「어느 실용 번역가의 아비투스 연구: 바깥텍스트와 번역결과물을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24(1), 167-199.

Bourdieu, P. (2008). A conservative revolution in publishing. *Translation Studies*, 1(2), 123-153.

Tyulenev, S. (2014). *Translation and Society: An Introducti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분석자료>

김숨. (2016). 『한 명』. 서울: 현대문학

김숨. (2020). *One Left*. Translated by Bruce Fulton and Ju-Chan Fulton. Washington: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